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에 관한 연구

김효정(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교수)

대학생 시기의 재무관리행동은 현재 자신의 경제생활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성인이 된 후의 재무적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금융관련 지식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고, 재무관리에 있어서도 부모의 의존정도가 높은 것과 같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 소비자의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무관리역량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27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SPSS Windows V.19.0을 이용하여 각 문항들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화폐에 대한 태도,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기능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태도,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분석, 일원분산분석,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성공의 요인, 미래안전의 도구, 과시적 수단, 불안의 근원, 감정충족의 도구, 인색한 태도, 인정받기 위한 수단의 7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 요인 중 불안의 근원에 대한 가장 점수가 높았고, 과시적 수단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았다. 한편 재무관리역량 수준을 살펴본 결과 재무관리태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재무관리지식, 재무관리기능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재무관리역량 차이를 살펴보면 재무관리지식은 재무관련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재무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에 비해 재무관리와 관련된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폐에 대한 태도 영역에 따라 재무관리태도와 재무관리기능에 차이가 있었다. 즉 화폐를 성공의 요인이나 과시적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집단의 경우 재무관리태도는 부정적이었으며, 화폐를 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집단의 경우 재무관리태도가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폐를 과시적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집단은 재무관리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볼 때 소비자재무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화폐에 대해 건전한 태도를 가지도록 가치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김정현, 최현자(2011). 소비자 재무관리역량 척도 개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4(3), 1-36.